

**[심의 총평] 기획자과정(aPD)**

- 일시 및 장소
  - (사전검토) 2018. 3. 23(금) ~ 3. 28(수) / 재택심의
  - (1차 서류심의) 2018. 3. 29(목) 13:00 ~ 15:30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2차 인터뷰심의) 2018. 4. 6(금) 13:00 ~ 18:00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3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경훈, 김성욱, 홍보라

1. 심의 과정

-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연구생 공모에는 총 31명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지원심의는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심의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 31건의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의책임자로 제작 후, 발송하여 충분한 시간으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월 29일(목)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공지된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제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총 15명을 2차 인터뷰심의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 4월 6일(금)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3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인터뷰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총 9명을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연구생으로 최종 선발하였다.

2. 심의 총평

<서류 심의>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연구생 공모에는 총 31명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행정결격 대상이 없으므로 31건의 모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총 15명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심의는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협업’,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본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잠재 역량 및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40%), 과정과의 적합성(40%), 제안한 아이디어에 기대되는 성취도 및 발전가능성(20%)’을 기준으로 서류 심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도 기획자(aPD)과정은 ①예술공간의 확장, ②문화기술의 활용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기획자들로 구성된 Collective 안에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심의 총평] 기획자과정(aPD)**

기획해보는 과정이다. 총 31명의 신청자 중 두 가지 주제를 모두 선택한 복수연구 신청자는 9명, ‘예술공간의 확장’만을 연구주제로 선택한 신청자는 21명, ‘문화기술의 활용’만을 연구주제로 선택한 신청자는 1명이었다.

예술공간의 확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청서의 경우,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보다는 주제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 기술이 많았다. 단순히 예술공간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입장만으로는 제안한 아이디어의 구체성이 보충되거나, 기대효과를 높이지 못해 아쉬웠다.

문화기술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지원신청자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기존 활동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제기된 필요성을 활용해본다는 막연한 계획이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아카데미 과정을 고려한 지원이라고 보다는 개인의 연구 성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몇몇의 지원신청서들도 아쉬움을 남겼다.

몇몇 지원신청자는 선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생각과 방향성을 기재하고 있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이에 심의위원 일동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각자가 공유할 수 있는 연구주제, 관심사, 이를 뒷받침하는 활동경험이 있는 신청자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 인터뷰심의를에서는 서류만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일부 모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협업에 대한 지원신청자의 자세와 의지를 중점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인터뷰 심의>

2차 인터뷰심의를는 서류심의를 통과한 15명의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원자들 모두가 저마다의 관점에서 ‘예술공간의 확장’, ‘문화기술의 활용’이라는 연구주제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진지한 분위기에서 심의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들의 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느껴볼 수 있었으며, 서류상에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아이디어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등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지원자들은 크게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가지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연구해

### [심의 총평] 기획자과정(aPD)

보고자 하는 지원자와 다소 열린 연구 방향성을 가지고 본 과정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해보고자 하는 지원자로 나누어졌다.

인터뷰 진행 결과 본 아카데미 과정과의 적합성이 부족한 단순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경우, 혹은 작품창작의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연구 성과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등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과정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지원자도 다수 있었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거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시간적, 예산적 제약이 크거나 경험부족으로 타 연구생들과의 공동연구가 어려운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 중에서도 ‘예술공간의 확장’ 과 ‘문화기술의 활용’ 이라는 주제에 대해 궁극적인 연구 목표와 방향성 보다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한 일회성 이벤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열정과 의지, 절실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기획자과정에 적합하기 보다는 창작에 방점이 있는 경우는 선정에 있어 지양하였다.

이에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활동과 경험, 연구 방향성이 분명한 지원자와 아카데미를 통해서 막연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자, 연구와 기획을 적절히 병행하면서도 협업에 열린 태도를 가진 지원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였다.

본 사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통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누고 생각을 확장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협업모델로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비록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신진 기획자들의 앞길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바이다.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선발 심의위원 일동